

##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11.12)

### 1. 지소미아 종료 관련

#### □ [일본 정부 동향]

- 미국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아베 총리는 11월 12일 회담을 갖고, 한국으로 하여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도록 요구하는데 의견을 일치<sup>1)</sup>
- 밀리 합참의장은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 한국을 방문, 협정의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해결하고 싶다” 고 하면서 협정 종료 결정을 재고하도록 요구할 생각임을 밝힘.

#### □ [일본 언론 동향]<sup>2)</sup>

- 닷케이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효력 상실 기한(23일 0시)을 앞두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
- 또한 한국 정부가 검토하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시 지소미아 종료 재고’ 방안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스가(菅) 관방장관은 11일 “수출관리제도 재검토(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종료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한국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발언함.
- \* 이와 관련하여 닷케이는 한국 측의 주장을 “일방적인 교환 조건” 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의 교환 조건으로서 대한국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방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
- 카지야마(梶山) 경제산업성 장관은 “수출규제는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물의 무역, 기술의 이전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며, 방위

1) 「米軍幹部“韓国にGSOMIA破棄見直し求める”首相と会談」 『NHK NEWS WEB』 (2019. 11. 12).

2) 「「GSOMIA」失効迫る、日本は静観、米は圧力、日米韓防衛相、17日会談へ、歩み寄る機会少なく。」 『日本経済新聞』 (2019. 11. 12).

당국 간의 군사정보에 관한 협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 라고 하면서 “부적절한 사안 및 수출관리제도의 불비(不備)의 해소가 수출규제 철회 조건” 이라고 주장

- 한편 닛케이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실시한 이유가 자국 산업의 기밀이 외국을 통해 유출되어 일본이 안전보장상 위협에 처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 지소미아의 종료는 한국 측이 대항 조치로 실시한 것으로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

## 2. 한일 국방장관 회담 관련

### □ [일본 언론 동향]<sup>3)</sup>

- 일본 언론은 고노(河野) 외무장관이 태국에서 11월 중순 개최될 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 일정에 맞추어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중이라고 보도
- 일본 측은 회담이 성사되면, 한국 측에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하며 철회를 재고하도록 요구할 방침임.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동 협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한미일 간 결속이 약해질 것이라고 염려

## 2. 수출규제가 일본 반도체 관련 업체 및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 관련

### □ [동향]<sup>4)</sup>

- 일본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 자산관리 주식회사는 한국의 반도체 소재 공급처 다변화가 진행되면 한국의 일본 의존도가 약화되고, 일본 소재 기업들은 소재 공급자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 가격 인하 압력 → 업계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

3) 「日韓防衛相 会談を調整 軍事協定破棄 河野氏再考要求へ」 『静岡新聞』 (2019. 11. 12).

4) :明治安田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2019), 「日韓摩擦に翻弄されるホテル業界と電子材料業界」.